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 추진

양 지자체 교통분야 숙원사업 덕진구 전미동·삼례읍 하리 연결 '하리고' 재가설

전주시가 완주군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등 동반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완주군과 상생·협력 노력을 통해 전주·완주 양 지자체의 교통분야 숙원사업인 덕진구 전미동과 삼례읍 하리를 연결하는 완주 '하리고' 재가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주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간 도로)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확정, 하리고의 재가설에 필요한 사업비 총 240억원 중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20억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양 지자체의 숙원사업인 하리고 재가설 확장공사를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18년부터는 기존 폭 8m(2차로)의 하리고를 폭 21m의 4차로로 넓혀 재가설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고, 운행노선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노선개편이 이뤄지면, 전주시민들은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도시공간 구조에 맞춘 노선이 확대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완주군민들도 이서와 삼례를 중심으로 한 시간산체 시범도입으로 배차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대콘크리트·아우디중산모터스 김영수 대표 등 임직원 5명은 19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저소득가정 청소년기 여학생을 위한 생리대 지원에 써달라며 3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간격이 줄어들고 완주군 지역간 이동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등 완주군과의 상생협력 노력과 전주·완주 노선개편IT팀 운영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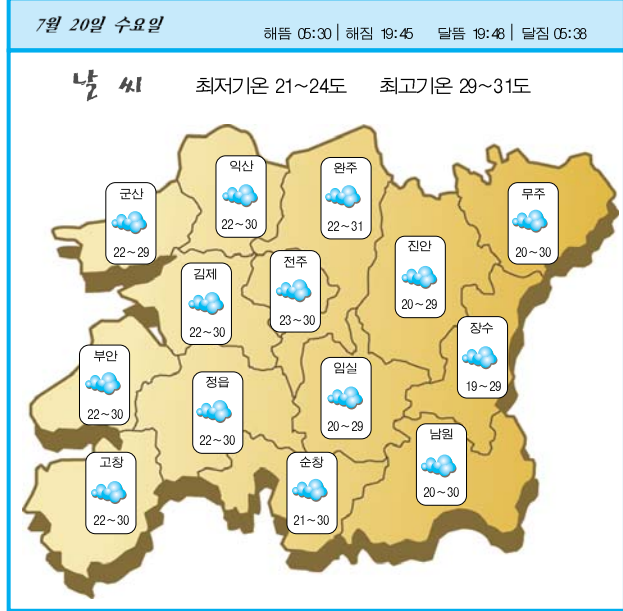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완주군과의 협의 등

을 거쳐 동일 생활권인 전주·완주 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생발전사업을 추가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 수혜처 발굴을 통한 완주지역 자원봉사 확대 등 민간교류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민들과 완

주군민들은 동일 생활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며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사업을 추가 발굴해 완주군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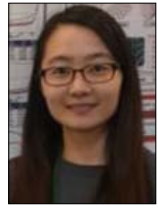
/김영재기자



유기태양전지 발전·하이브리드태양전지 효율 향상 전북대 대학원생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주목

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 전문대학원 광전자연구실(지도교수 나석인) 대학원생들이 발표한 연구가 최근 국제 학술지에 잇달아 게재되며 학계에 눈길을 사로잡았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해당 연구실 이유선 대학원생은 최근 전자주계 특성을 갖는 새로운 공액 유기화합물을 사용해 유기태양전지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 배준호 대학원생 역시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전자수송층에 적절한 도펀트 물질을 적용하여 유기 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



이유선 씨



배준호 씨

지에 각각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융합융합 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및 방산 기술 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향후 차세대 유기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실현화를 위한 유연 인쇄형 반도체 기반 핵심 소재들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이들 연구 결과는 영구 왕립화학회 발간 국제학술지에 각각 온라인 출판되면서 학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2년차 공약 이행률 '합격점'

5대 분야 41개 사업, 현재 681억 8,600여 만원 확보·445억 6,200만원 집행 62.8%이행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취임 2년차 공약 이행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대 분야 41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약 681억8,600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약 445억6,200만원을 집행해 공약 이행률은 62.8%로 나타났다.

공약 5대 분야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차별 학력 신장 ▲교육정책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평화롭고 안전한 학

교 분야는 6월 말 현재 평균 70.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학생 인권권 보장 등 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 확대 및 안전한 등하교 보장 사업은 이행완료 후 계속추진 중이다.

또 7건의 공약사업이 추진 중인 참된 학력 신장 분야에선 평균 72.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 마을예술학교 운영, 인문·독서교육 강화, 진로직업 체험교육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교육정책의 실현 분야에선 총 15건의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발전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와 방생통신중학교 설치,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 IT팀,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주관 법인간 공동 전형 시험 실시 등의 사업이 평균 5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복지 확대 분야에선 5건의 공약이 제시됐으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활용성 제고, 놀이체험 중심 전북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분야

의 경우 어울림학교 지정, 학교기업 및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발전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전북공립학교 회계 규칙 등 공약 실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체법규를 추가로 제·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관 협력 형태의 공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감 공약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원광대-동서발전 업무협약·간담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한국동서발전(주)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원광대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김도중 총장과 김용진 사장, 송문규 원광대 LINC사업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해안 발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동 추진과 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MOU 체결 후 창업교육센터 배송철 교수 진행으로 열린 지역발전간담회는 정정권 부총장과 김용진 사장,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주) 임직원, 송문규 LINC사업단장,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유관학과 교수 및 LINC사업단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고민형기자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MOU 체결 후 창업교육센터 배송철 교수 진행으로 열린 지역발전간담회는 정정권 부총장과 김용진 사장,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주) 임직원, 송문규 LINC사업단장,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유관학과 교수 및 LINC사업단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